

# 21세기 사회와 변화



KJ인문경영연구원

임용한

# 시대의 분석

시대의 이해

대전략

피아의 분석

전략전술

방법

가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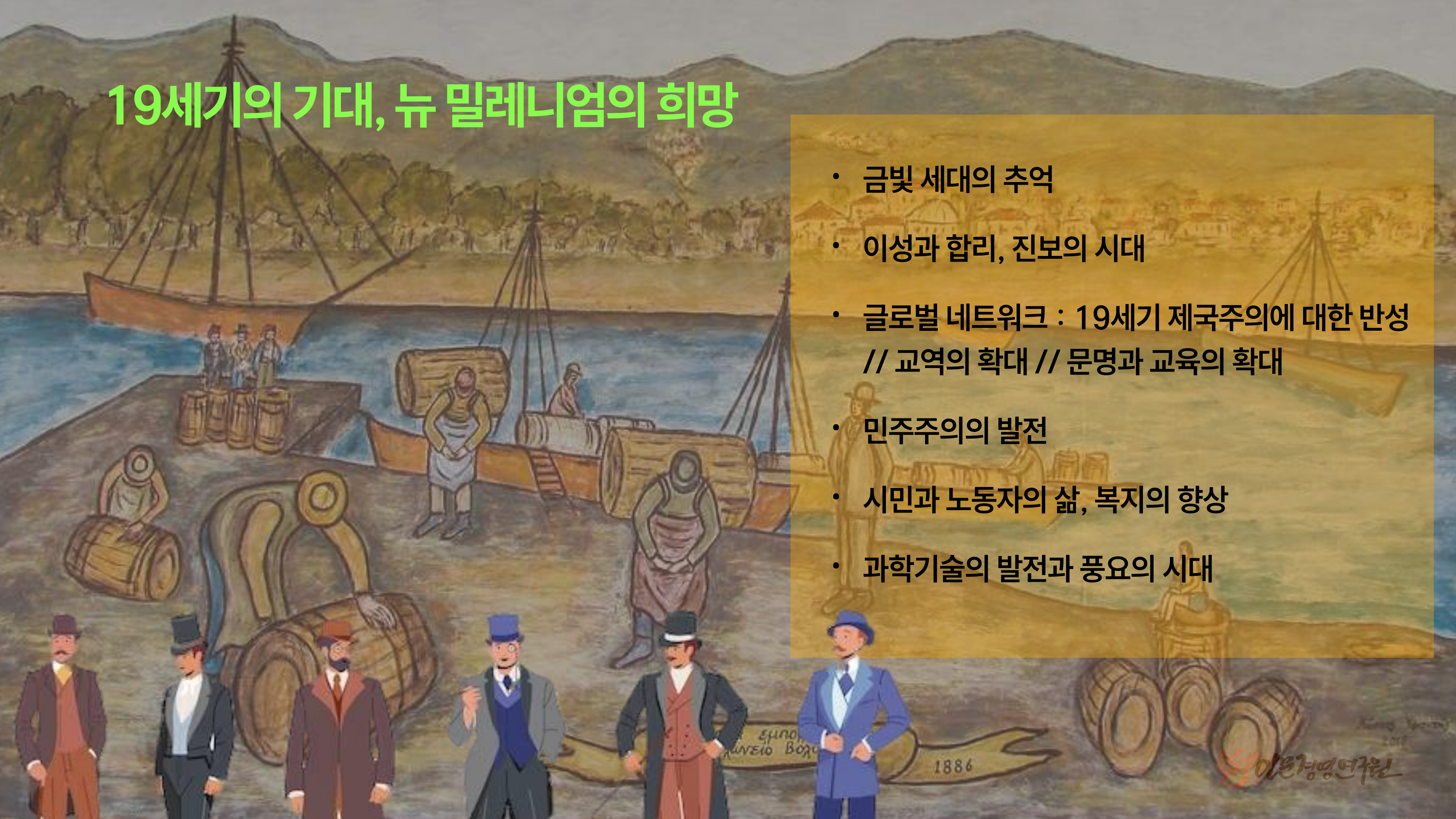
환경



**실상을 보아야 한다**

# 19세기의 기대, 뉴 밀레니엄의 희망

- 금빛 세대의 추억
- 이성과 합리, 진보의 시대
- 글로벌 네트워크 : 19세기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  
// 교역의 확대 // 문명과 교육의 확대
- 민주주의의 발전
- 시민과 노동자의 삶, 복지의 향상
- 과학기술의 발전과 풍요의 시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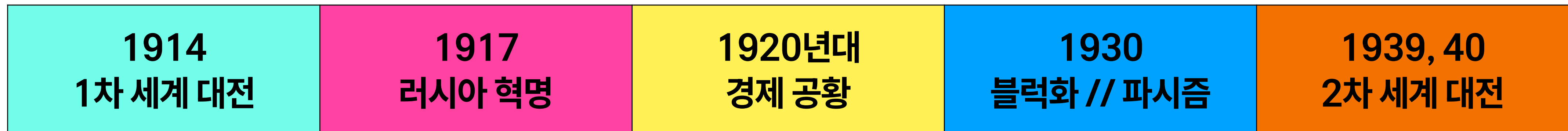
“국민의 전쟁은 국왕의 전쟁보다 훨씬 참혹할 것이다” (윈스턴 처칠)

##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과 민주주의의 배신



# 20세기와 21세기 평행이론?

- 2010 아랍의 봄: 독재의 순환 // 내전
- 슈퍼 파워의 쇠퇴 또는 자국 중심주의 : 국지전 => 세계 대전의 위기
- 이성과기술의 진보, 경제의 성장: 우-러 전쟁, 러시아 중국의 독재화, 팽창정책, 신 나치즘
- 글로벌 체제: 신냉전, 블럭화 예고, 세계적 경제위기
- PC 운동과 포퓰리즘: 계급 국가갈등을 강화



# 이성의 오류? 인류의 한계?

- 복잡해진 사회 // 복잡해진 세계 => 갈등과 해법의 난맥
- 과학기술과 부의 증가: 욕망의 증가, 국가 통제력, 관리 능력의 증가
- 국가 권력의 강화 : 개인의 욕구 < 국민의 욕구 < 국가적 행동 (전쟁, 정복)
- 민주주의 : 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대신 결정을 위임. 개인의 지성이 집단의 욕구를 이길 수 없음
- 지식인, 전문가의 지식과 신로의 한계 => 대중의 검증 => 집단 지성이란 단순화된 욕망의 결집

# 21세기 글로벌 시스템의 오해

국제 기준

국내 기준

선진국

후진국





# 세대는 기억과 선택을 공유할 수 없다

국제 기준

국내 기준

선진국

후진국

# 21세기 뉴 냉전과 뉴 블록

- 민주 국가와 권위국가(국내 체제)의 블록
  - 문명권//대륙간의 블록
  - 패권세력 간의 블록
- 나토 재무장
- 동북아 블록 (중국//미=일=호=인도)

# 21세기 뉴 냉전과 뉴 블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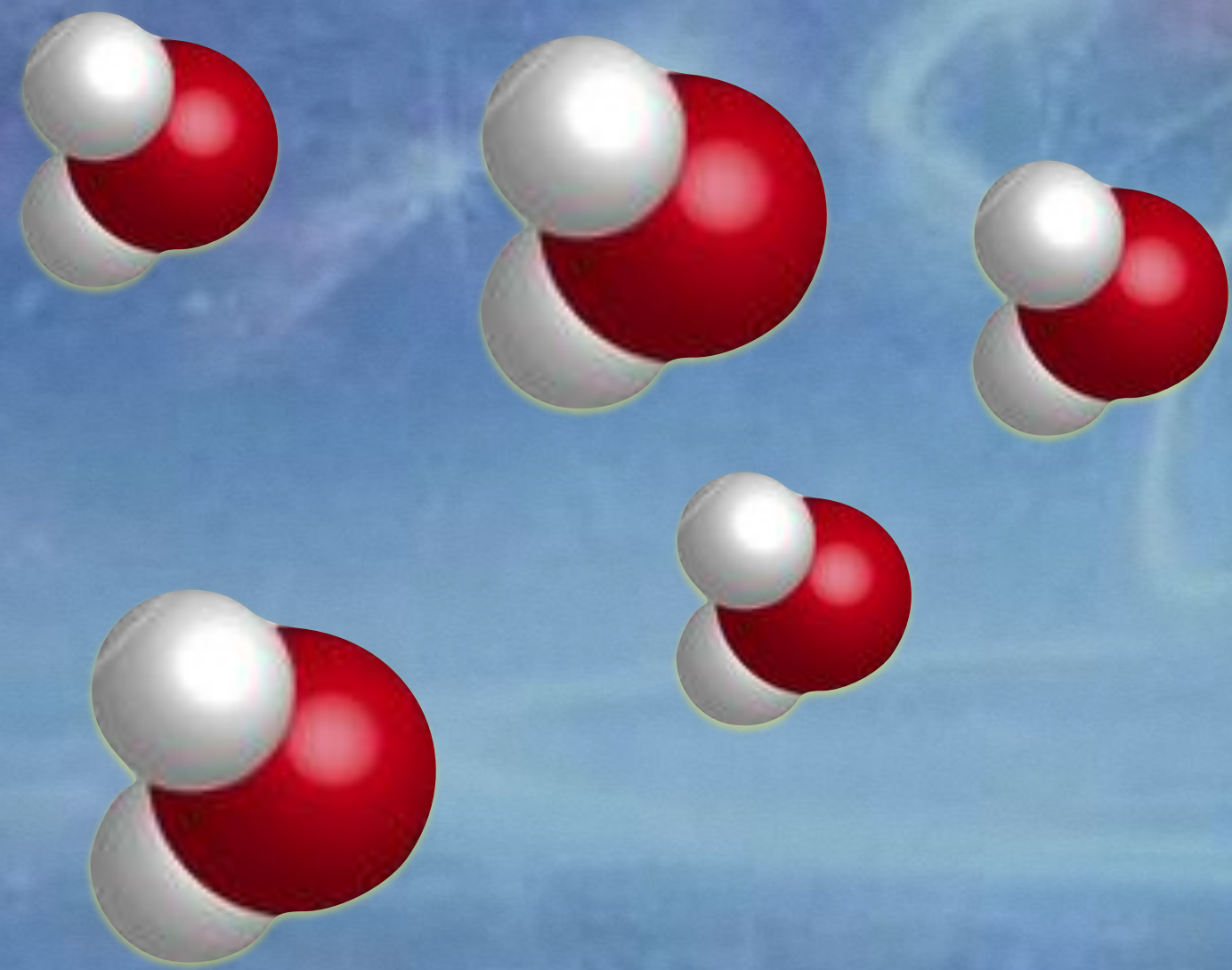
- 정의, 이념과 현실
- 현재와 미래
- 국내 우선과 국제 주의

20세기와 다른 점은



# 지식, 경영이론, 리더십의 본질은 **현실과의 거리**

소우주 = 대우주론



# 역사의 승자, 명장들의 공통점

껍질을 깨고 나온 사람들

과거

경험

다수

허위

# 역사의 승자, 명장들의 공통점

## 껍질을 깨고 나온 사람들

- 현상의 배후에 있는 조건과 배경을 분석
- 현상의 강력함은 인정해야 하지만 원인과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
- 목표를 잊지 않고, 전술과 전략을 혼동하지 않는다